



신라시대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 양상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nflict between Native Belief and Buddhism in Buddhist Temple Foundation
Fable : The Poison Dragon Repulsion Type

저자 (Authors)	송봉호 Song, Bong-Ho
출처 (Source)	종교문화연구 (5) , 2003.10, 171-187(17 page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5) , 2003.10, 171-187(1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구 한신인문학연구소) Center for Religious and Cultur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3184
APA Style	송봉호 (2003). 신라시대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 양상. 종교문화연구(5), 171-18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8 15: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시대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 양상*

—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

송 봉 호**

<차 례>

- | | |
|-----------------------|-------------------------------------|
| I. 서 론 | IV. 독룡퇴치형 창사설화에 나타난 불교와 전통신앙의 갈등 양상 |
| II. 불교수용과 사찰창건 | V. 결 론 |
| III. 독룡퇴치형 창사설화의 서사구조 | |

I.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龍을 매우 신성시하였다. 꿈에라도 龍이 나오면, 龍夢이라 하여 좋은 일이 있을 吉夢으로 생각하였다.¹⁾ 또한 龍은 비상한 인물의 탄생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여겼는데, 왕이나 장군 등 영웅의 출생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농촌에서는 물을 주관하는 水神으로서 龍을 숭배하여 가뭄이 들면 龍이 사는 龍沼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불교에서 龍은 八部神衆의 하나로 불법을 守護하는 護法龍으로 모셔졌으며, 나라를 지키는 護國龍으로 숭배되었다. 이와 같은 龍의 기능은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되는 과정 속

* 본 논문은 저자의 2002년 한신대학교 대학원 종교문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창사설화에 나타난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에 대한 연구: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를 중심으로”를 재구성한 것임.

** 한신대학교 대학원 종교문화학과 석사과정 졸업.

1) 강영경, “한국고대사회에서의 龍의 의미”,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민속원, 2002), pp. 110-111.

© 『종교문화연구』 제 5 호, 2003, pp. 171~187.

에서 불교 龍 관념은 전통적인 龍과 습합되어 그 의미와 기능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²⁾

불교 수용 이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龍신앙은 ‘미리·미르’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과 예시적 기능을 가진 신이한 존재로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主神으로서, 고대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³⁾ 그래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龍과 동일시하였으며, 龍과 동일시된 왕은 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불교 龍 관념의 수용은 전통적인 龍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다.

『三國遺事』 소개의 사찰 창건설화를 보면 대부분 신라의 사찰들은 龍과 관련된 창사설화를 가지고 있다. 창사설화에 등장하는 龍들은 불교 龍으로서 護法·護國하는 守護神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찰들은 전통적인 龍신앙의 성소에 건립되었다. 이것은 불교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통신앙을 발판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즉 전통신앙의 근원지에 외래종교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전통신앙을 견제하고 새로운 신앙체계를 건립하고자 한 것이다. 엘리야데는, 종교적 성소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며, 속된 삶을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인도해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라 했다. 그래서 전통신앙의 聖域이 외래종교에 의해 변모된다는 것은 그 성역을 중심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우주관과 세계관도 함께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불교의 정착과 확산 속에서 전통적인 龍의 신앙과 불교적 龍신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본고는 龍 관련 사찰 창건설화 중 ‘毒龍退治型’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毒龍退治型’ 창사설화 중 九龍 관련 창사설화의 서

2) 하정룡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龍신앙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선사시대부터 龍문화가 발견되고 있음으로 볼 때 한국도 예외일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 유적 3기층에서 뱀머리 조각품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의 龍문화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黃龍潭, “新石器時代-藝術과 信仰”, 『韓國史論』12, 國史編纂委員會, 1984, pp. 678-680) 그래서 하정룡은 신라가 중국계 이주민에 의해서 건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라의 초기 龍신앙을 굳이 중국의 龍문화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신라나 고려의 건국신화를 통해 전통적인 龍신앙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하정룡은 우리나라 고유의 龍신앙과 외래종교의 유입에 따른 龍신앙의 변화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선사농경이래 존재했던 고유의 龍신앙. 2단계: 신라건국전후의 중국의 龍신앙 유입. 3단계: 불교전래전후의 불교의 龍(인도의 Naga)신앙 전래. 하정룡, “신라시대 용신앙의 성격과 신궁”, 위의 책, pp. 180-184.

3) 변영석, “韓國 龍說話의 根源과 象徵的意味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7, p. 24.

사구조를 분석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九龍 관련 창사설화에는 전통적인 龍과 불교와의 대립·갈등양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도사와 구룡사, 그리고 옥룡사의 창사설화가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九龍 관련 창사설화에서 毒龍으로 등장하여 퇴치당하는 龍은 자신의 터전을 불승에게서 지키려다 희생당한 전통적인 龍으로서, 불교의 세력에 밀려 쇠퇴해가는 전통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毒龍退治型’ 창사설화 중 九龍 관련 창사설화는 불교 수용과 정착과정에 있어서 전통신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나아가 九龍 관련 창사설화는 신라사회의 외래종교의 수용에 따른 왕실과 지방 족장들의 정치사회적인 갈등양상도 함께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왕실은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행사하는 지방 족장세력들을 누르고 미약했던 왕권을 재정립하고자 하였고, 지방 족장세력들은 전통신앙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위와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龍신앙과 불교와의 대립구조는 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둔 정치사회적 세력다툼이라는 갈등양상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II. 불교수용과 사찰창건

신라는 고구려(소수림왕 2년; 서기 372)에 불교가 들어온 지 156년 뒤인 法興王 14년 이차돈(503~527)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때이지만, 그 이전부터 신라에는 불승들이 들어와 불교를 포교하고 있었다. 그 인물이 ‘아도’라는 불승이며⁴⁾, 눌지왕 시대였다. 그런데 신라의 불교 공인은 새로운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전환점이 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면서 최고신으로 숭배되던 天神이 부처로 대체되었고, 부처의 하위신으로 전락하였다. 정치적으로 신라 왕실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왕실의 통치하에 전국적으로 불국토 사상의 유포와 더불어 사찰 창건이 장려됨으로 해서 불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⁵⁾

4) 목정배, 『삼국시대의 불교』(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 110-114.

5) 이를 좀더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법흥왕의 불교공인은 왕권의 신성함을 뒷받침하였으며… 나아가서 불교는 정복전쟁을 합리화시켜 줄 뿐 아니라 사상의 통일을 통해 국민적 단합을 꾀할 수 있었다. 신성한 佛陀의 사상은 聖骨과 같은 골품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三寶와 같이 왕실과 불교의 관련 속에서 종교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공인은 왕실과 귀족의 타협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圓光의 世俗五戒나 乞師表

그러나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상당히 뿌리깊은 전통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다. 『三國史記』法興王, 15年條에 수록된 기록을 보면, 법흥왕의 불교 공인에 있어 강한 반대를 표명하는 신하들과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왕이 이에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으니, 다들 말하기를 “지금 승려들을 보면 박박 짝은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며, 강론하는 것은 괴이한 속임수요 몇몇한 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저들을 제멋대로 놓아둔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저희들은 비록 이 자리에서 중죄를 입을지라도 감히 조칙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⁶⁾

이처럼 법흥왕의 불교 공인에 있어 신하들의 강한 반발을 보인 것은, 전통적으로 신라는 하늘승배사상과 지모신 관념이 융합된 천부지모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또한 신라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하와 지방 족장들이 불교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⁸⁾ 하지만, 이차돈의 죽음은 법흥왕 이후로 왕실에게는 왕권을身受케하고, 종교로서는 불교를 국민 모두가 신앙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⁹⁾

이처럼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불교 공인의 의지를 보인 이유는, 신라는 부족동맹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신라라는 국가를 형성하였지만, 각 부족들은 여전히 전통신앙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상적 통일과 중앙집권화를 실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라는 왕뿐만 아니라, 지방 족장세력인 사로 6촌장들의 출생 또한 天神下降神話를 가지고 있었고, 그 6촌장들이 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해 신라를 건국했다¹⁰⁾는 건국신

와 같이 國家觀의 확립...”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신형식, 『新羅史』(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p. 105-106.

6) 『三國史記』卷 4, 新羅本紀 第 4, 法興王 15年 條. “王於是 召臣問之 余曰 ‘今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詔’

7) 이와 같은 내용은 신라의 건국신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8) 홍경표, “龍神說話와 그 象徵體系 試攷”, 『한국전통문화연구』 1(1985), p. 2710.

9) 아차돈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왕은 불교 진흥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 둘째, 군신 등의 귀족 집단은 불교를 탐탐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셋째, 이차돈의 서원과 이적에 의하여 불교는 신라사회에 유행하게 된다. 이처럼 이차돈의 순교는 왕권과 귀족집단의 견제와 갈등이 원인이 되어 야기된 것이다. 윤천근, “신라에서의 불교수용과 그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新羅思想의 再照明』(서경문화사, 1992), p. 271; 목경배, 앞의 책, p. 120.

10) 일연,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리상호 역(까치, 1999), pp. 66-73.

화의 내용에 비추어, 지방 족장들의 독립적인 세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지방 족장들이 天神下降神話를 기반으로 신라를 건국한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이, 국가형성 이후에도 족장들의 기반이 신라 사회에 강하게 존속되었음을 말해 준다.¹¹⁾ 따라서 신라왕실에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들과 함께 다른 귀족세력들보다 우월한 神聖觀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 왕실은 외래종교인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고, 종래의 신앙체계에서 최고 신격이던 천신은 불교 수용 이후 부처의 하위신으로 복속되게 된 것이다.¹²⁾ 오직 부처만이 절대적·궁극적 존재이며 천신은 상대적이며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었다.¹³⁾ 이렇게 천신을 불교의 守護神의 하나로 전락시킴으로서 왕실은 천신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지방 족장들의 정신적 토대를 약화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왕실의 지위가 귀족들보다 우월한 것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신라의 왕실은 지방 족장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¹⁴⁾ 또한 왕실은 불교를 공인한 후 전국에 사찰을 건립함으로써 불교의 정착과 확산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사찰창건이 전통신앙의 성소에 건립됨으로서, 전통신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견제하고 복속시킬 수 있었다.

신라는 전통적으로 용신앙이 매우 폭넓고 뿌리 깊게 자리잡은 나라였다. 『삼국유사』를 보면, 용 관련 설화만 27편이 있다. 그 중 북부여의 1편(天帝의 乘五龍車), 고구려의 것이 1편(道士의 呪龍築城), 백제의 것이 2편(蘇定方 釣龍岩과 武王母의 池龍交通), 가락의 것이 1편(魚山佛影), 고려의 것이 1편(仙桃山聖母隨喜佛寺), 그밖에는 모두 신라의 龍이야기이다.¹⁵⁾ 그런데 신라의 대부분 용 관련 창사설화를 가지고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용신앙터에 걸립되었다.

11) 서영대, “한국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1, p. 252.

12) 왜냐하면 불교에 있어서 天神은 護法崇佛 勸善護世의 善神이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므로,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天神이 절대전능의 존재일 수도 없고 신앙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佛法 守護神으로서 또는 수도인과 신불자 및 제반불사를 보우옹위하는 신이기 때문에 佛寺道場에 배열안치하여 道場守護와 불사명조 및 선법증장을 기구할 神으로 모셔졌다. 김영태, 『新羅佛敎研究』(民族文化史, 1987), pp. 432-449. 참조.

13) 황민정, “한국 고대사회의 龍 신앙 연구: 三國史記·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1999, p. 32.

14) 위의 글, p. 32.

15) 이동철, “韓國龍說話의 類型的 意味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2, p. 40.

특히 『三國遺事』소개의 龍 관련·창사설화의 유형 중 毒龍退治型 창사설화를 통해 불교의 정착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창사설화는 다른 유형과 달리 전통신앙과 외래종교인 불교와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⁶⁾ 즉, 불승과 전통적인 龍이 성소를 두고 대결을 벌이는 구조를 담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龍은 불교의 非法行龍 즉, 毒龍으로 분류되어 교화나 퇴치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왜냐하면 불법에 귀의하지 않은 전통적인 龍은 민생에 해를 주는 非法行龍으로서 당연히 제압해야 할 毒龍으로 상정되어 자신의 거처에서 살해당하거나 쫓겨난다. 이는 불교의 입장에서 굴복하면 善龍으로, 저항하면 퇴치의 대상인 毒龍으로 상정된 것이다.¹⁸⁾

요컨대, 불교의 정착과 확산 과정에서 전통적인 龍 관념이 불교 龍 관념으로 대체되거나 변모되었던 것이다. 사찰 내에 山神閣과 장승의 존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전통신앙의 잔재가 아니라 전통신앙의 祭堂構造 안에 佛堂이 들어서는 특유의 복합형태를 보이고 있음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龍이 등장하는 사찰창건설화를 가지는 사찰에 龍王堂이나 우물과 같은 龍의 거처가 존재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전통적인 龍신앙 터전 위에 세워진 사찰의 창사설화는 전통적인 龍과 관련된 설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이처럼 毒龍의 등장이나 불법에 의해 龍이 부림을 받게 되는 현상은 불교적인 최고신의 유입에 따라 전통적인 龍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²²⁾ 더욱이 佛典 속에서 龍은 暴惡·奸巧 등과 같은 부

16) 이준곤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 우선 護國護法型 창사설화에 나타나 는 龍은 전통적인 龍관념은 사라지고 불법에 歸依된 불교 龍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龍神出現型 창사설화에서는 王이 龍이 되어 국가를 守護하거나, 적의 침입 때 神力을 발휘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 龍神出現型 창사설화는 불교에 귀의된 龍 중 가장 神力이 높은 존재로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로 나뉜다. 이준곤, “韓國의 創寺說話 研究: 龍神說話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6, p. iv 참조.

17) 이 분류 유형은 앞에서 제시한 이준곤의 글(p. 36)을 참조하여 분류한 것으로, 龍이 사찰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귀결된다.

18) 황민정, 앞의 글, p. 26.

19) 최광식, “무속신앙이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 산신각과 장승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6 (1981), pp. 76-77 참조.

20) 황민정, 앞의 글, p. 33.

21) 이준곤, 앞의 글, p. 24.

22)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집문당, 1999), pp. 193-194.

정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인간에게 해를 주는 毒龍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불법에 귀의되지 않은 전통적인 龍은 毒龍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 즉 신라의 전통적인 龍은 불교의 수용 이후 毒龍으로 상정되어 불교의 위력 앞에 교화되거나 퇴치됨으로서 불교신앙의 매개물이 되었던 것이다.²⁴⁾ 이것은 전통적인 龍신앙이 불교의 龍 관념과 대립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Ⅲ. 독룡퇴치형 창사설화의 서사구조

이와 같이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는 전통적인 龍신앙과 불교와의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여주며, 그 중 九龍 관련 창사설화는 매우 구체적인 설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九龍 관련 창사설화를 가지고 있는 사찰인 통도사·옥룡사·구룡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불승에 의해 창건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설화구조를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불승과 독룡(즉 전통적인 龍)의 대립·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사찰의 창사설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해 보면, 通度寺²⁵⁾는 영취산의 구룡소에 살던 구룡이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은 자장을 사에게 쫓겨나게 된 구룡소에 지은 사찰이다. 이와 같은 설화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섯 가지 서사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영축산(영취산=靈鷲山)의 연못에 아홉 마리의 龍이 산다.

두번째, 아홉 마리 龍은 毒龍으로서 백성에게 해를 입힌다.

세번째, 문수보살이 자장에게 금강계단을 쌓아 毒龍의害를 없애고 불법을 설할 것

23) 이우성은 毒龍을 전통적인 東海龍神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 족장들을 대표하는 神物로 보고 있다. 이우성,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高麗 其人制度의 起源과의 關聯에서”,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1969), pp. 6-10.

24) 홍경표, 앞의 글, pp. 262-263.

25)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취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다. 이 절은 국가 3대 사찰의 하나로서 廣域寺刹의 위용을 가지고 있다. 13개의 법당과 3개의 문이 있으며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한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에 大光明殿列과 開山祖堂列이 더해진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서 九龍 관련 설화를 전해져 내려오는 사찰 중의 하나다. 양산군지편집위원회, 『양산군지』(양산군, 1989), p. 1763.

을 명한다.

네번째, 자장과 九龍이 대결을 벌인다.

다섯번째, 대결에서 패한 九龍 중 8마리는 죽고 한마리는 눈이 멀어 구룡소에 남는다.

여섯번째, 구룡소를 메우고 통도사를 짓는다.²⁶⁾

九龍寺²⁷⁾는 의상대사라는 스님이 절터를 두루 찾던 중 원주 치악산 구룡골이 명당임을 알고, 그 곳에 살고 있던 九龍을 몰아내고 창건했던 사찰이다.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치악산의 큰 연못에 九龍이 사는 구룡소가 있다.

두번째, 毒龍으로서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다.

세번째, 의상과 九龍이 대결을 한다.

네번째, 대결에서 패한 구룡 중 8마리의 龍은 죽고, 남은 한 마리는 눈이 멀어 구룡소에 남는다.

다섯번째, 구룡소를 메우고 사찰을 창건한다.²⁸⁾

마지막으로, 玉龍寺²⁹⁾는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가 명산을 찾아다니다가 이곳 백운산에 형세를 보고, 불법을 널리 펼 만한 곳으로 여겨 그곳 구룡지에 사는 아홉 마리 龍을 내쫓고 지은 사찰이다. 그런데 구룡소를 메우기 위해 도선국사는 눈병을 널리 퍼트린 다음 구룡소에 소금과 숯을 부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내어 구룡소를 메우고 사찰을 창건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옥룡사의 사찰 창건설

26) 양산군편집위원회, 위의 책, p. 2098.

27) 원주시 소초면 학곡 2리에 있는 사찰로서,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대웅전 자리에 9마리의 龍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라 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거북바위 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명칭인 龜龍寺로 개칭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구룡사의 대웅전은 1971년에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 앞에는 심검당·설선당의 승사가 있으며, 이밖에도 삼성각·범종각·원통문·국사단 등이 있다. 절 입구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부도군이 있고, 또 구룡사의 전설을 말해주는 거북바위와 용폭, 그리고 폭포 아래에 龍沼가 있다.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편』(원주시, 2000), pp. 891-892.

28) 위의 책, pp. 409-410, 916; 『한국구비문학대계』 8-9.

29) 전라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의 한 지맥인 백계산의 남단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禪僧이자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진 선각국사 도선이 35년이나 주석했던 사찰이다. 이 사찰은 나말여초의 雙碑와 雙塔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화재를 당해 폐찰이 되면서 천년 이상 밝혀왔던 범등은 꺼지고 폐사되었다. 불교전기문화연구원, 『도선국사』(불교영상학회보사, 1997), p. 394.

화의 서사구조는 다른 사찰보다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개구조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옥룡사는 다음과 같이 아홉가지의 서사구조로 분류되며, 그 중 여섯 가지가 앞의 사찰들과 유사한 모티브를 형성한다.

- 첫번째, 백운산에 있는 龍沼에 九龍이 살았다.
- 두번째, 毒龍으로서 백성들에게 害를 입힌다.
- 세번째, 도선과 九龍이 대결을 하다.
- 네번째, 대결에서 패한 九龍 중 8마리는 도망갔지만, 백룡 한 마리는 활에 맞아 죽었다.
- 다섯번째, 용소를 메우기 위해서 도선국사가 전국에 鑿을 퍼트린다.
- 여섯번째, 백성들이 소금과 糞으로 메운 용소에 절을 지었다.
- 일곱번째, 도선국사가 탈혼하여 서천서역국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태우지 말라고 하였고, 백씨성을 가진 사람들 절에 들어지 말라고 하였다.
- 여덟번째, 세월이 지나서 백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절의 화목으로 들어온다.
- 아홉번째, 그 화목이 도선의 육신을 태워 버림으로 해서, 도선의 혼백이 다시 왔으나 육신이 없어 들지 못했고, 절은 점차 망하게 되었다.³⁰⁾

앞에서 ‘毒龍退治型’ 창사설화 중 九龍 관련 설화를 가지고 있는 사찰의 창사설화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세 사찰의 창사설화는 몇 가지의 공통된 신화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공통된 신화적 모티브	
통도사	첫째, 聖山의 神池에 사는 九龍. 둘째, 聖沼 九龍의 毒龍化
구룡사	셋째, 毒龍과 佛僧과의 대결. 넷째, 九龍의 패배.
옥룡사	다섯째, 九龍沼에 사찰건립.

이와 같이 세 사찰의 창사설화는 아홉 마리의 전통적인 龍이 毒龍으로 치부되어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과 전통적인 신앙터인 龍沼에 외래종교인 불교의 사찰이 건립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세 사찰의 창건설화를 통해 불교가 공인되면서 전통신앙과 불교의 종교적 갈등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0) 이준권, 앞의 글, p. 107.

IV. 독룡퇴치형 창사설화에 나타난 불교와 전통신앙의 갈등양상

위의 공통된 신화적 모티브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전통적인 신앙터인 성산의 신지에 毒龍이 살면서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 두번째, 불승이 찾아와 아홉 龍과 대결 끝에 여덟 마리 龍은 죽거나 자신의 거처에서 쫓겨나고 한 마리 龍은 눈이 멀어 구룡소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 세번째, 불승은 구룡소를 메우고 그곳에서 사찰을 창건한다는 신화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공통된 신화적 모티브를 통해 불교와 전통신앙과의 갈등양상을 찾아보면, 우선, 전통적인 신앙터인 성산의 신지에 毒龍이 살면서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신화적 모티브를 보자. 우리나라 고대인들은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산을 바라보며 우주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상정하였고, ‘天-山-地’라는 도식을 그리게 되었다. 이 3차원적인 공간상에서 인간이 하늘과 땅(天地=宇宙)의 ‘가운데[中]’³¹⁾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산’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산악숭배는 본래 우리의 고유한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숭배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하늘에 대한 한국인들의 숭배의식도 ‘산’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졌기 때문이다.³²⁾ 특히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신앙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신앙이 바로 산악(즉 山神) 숭배였다. 이것은 신라의 삼산오악에서 이루어진 치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데, 삼산오악은 신라의 거국적인 제사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소위 삼사란 제전이 이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다.³³⁾

31) 한상우, “한국적 사유체계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 단군신화에서의 ‘산’의 상징성으로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8집(1992), p. 110.

32)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山岳崇拜意識 중 蘇塗라는 신성 지역이 있는데, 이 蘇塗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솟터를 의미하며, 이 솟터는 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蘇塗를 성황당 또는 서낭당으로 보고 그 곳에 있는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근대에까지 이어져왔던 洞祭의 대부분이 사실은 山神祭였다는 사실과 이 제사에서는 天神이 하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 고대국가인 신라에서는 三山五嶽이라는 山神祭를 거행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나라의 山岳崇拜思想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山岳崇拜思想은 하늘숭배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류동직, “神話와 儀禮에서 본 古代韓國人の 信仰形態”, 『종교연구』, 제1집(1972); 조지훈, 『韓國文化史序說』(담구당, 1987), p. 83 참조.

33) 문경현, 『증보: 新羅史研究』(춤, 2000), p. 512.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서는 전통적인 성산에 있는 성소에 사찰을 건립함으로써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는 영축산은 불교가 들어와 자리잡기 전에는 鷲棲山이라 불리었다. 취서산은 인도의 영취산과 통한다고 하여 자장이 취서산을 영취산으로 부른 후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³⁴⁾ 그러나 영취산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 신라의 전통적인 龍신앙의 성역 중의 하나였다. 영취산에서 발원하여 강을 이루는 黃山江은 신라 때부터 四瀆의 하나로 中祀가 치제되어 왔다. 황산강 상류에는 중사의 제터인 伽倻津司가 있다. 이 가야진사는 신라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천지신명께 제의를 드리기 위해 세워지기도 하였고, 龍이 출현한 곳이기도 하다.³⁵⁾ 가야진사가 있는 가야진은 玉池淵이라고도 부르며, 『東國輿地勝覽』에서는 조선 세종 때에 황룡이 물 속에 나타났다고도 하며, 예부터 기우제를 지낸 성소라 한다.³⁶⁾ 즉, 통도사를 창사한 영취산은 용신신앙터가 모여있던 전통적인 성산임을 알 수 있으며, 이곳에 자장이 통도사를 창건함으로써 불교의 성소로 재성역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룡사가 자리잡고 있는 치악산도, 오래 전부터 산신제와 기우제를 지내던 성산이다. 치악산에 관한 고전시가를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구사맹(1531~1604)³⁷⁾의 시가를 보면,

첩첩으로 된 봉우리는 용이 날며...
만물을 이롭게 하느라고 우로를 젖게 하네
제사를 지낸은 전부터 예우를 융숭히 함이니 <「雉岳」>

또한 이상(1620~1690)³⁸⁾의 시가에서도 치악산의 신령함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산을 돌고 골짜기 돌아 물소리 멀어지니
신선의 곳이 벌써 속세와 막히었네 <「雉岳山을 내려오며」 중에서>

이 뿐만 아니라, 치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내용도 알 수 있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 치악산 기우제문을 지었다는 노진(1518~1578)의 「치악산기우제문(奉教製)」

34) 이기영 외, 『통도사』(대원사, 1999), p. 11.

35) 양산군지편집위원회, 앞의 책, pp. 2127-2128.

36) 이준곤, 앞의 글, pp. 100-101.

37)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95.

38) 위의 책, p. 297.

와 이이(1536~1584)³⁹⁾의 「雉岳山祈雨祭文」를 통해 치악산이 예부터 전통적인 龍신앙이 자리잡았던 성소로서 운우를 다스리는 龍이 살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구룡사사적기』에 수록된 미수 허목의 글 가운데 “조선시대 조정에서 산신제사를 지냈다”⁴⁰⁾는 이야기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치악제단의 흔적으로 보아 국가적인 기우제를 지냈던 전통적인 성산임을 알 수 있다.⁴¹⁾

마지막으로 옥룡사의 절터를 보면, 풍수지리적으로 백계산은 금계포난형이고, 백운산은 금화심형을 취하고 있어⁴²⁾ 풍수가들은 훌륭한 명산으로 보고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성산이나 명산이 새의 형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이유로, 새는 초월, 혼, 령, 신의 현현 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신, 천동신, 바람의 신과 동일시된다.⁴³⁾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옥룡사가 자리하고 있는 백운산 또한 성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풍수지리적으로 새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옥룡사 뿐만 아니라 통도사의 영축산과 구룡사의 치악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구룡이 사는 곳은 전통적인 성산이며, 성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승이 찾아와 전통적인 용을 백성에게 해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독룡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두 번째, 佛僧이 찾아와 아홉 龍과 대결 끝에 여덟 마리 龍은 죽거나 자신의 거처에서 쫓겨나고, 한 마리 龍은 눈이 멀어 구룡소에 그대로 남는다는 신화적 모티브다. 우선 통도사의 창사설화 중 佛僧과 아홉 마리 龍의 대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대의 나라 남쪽 영축산 기슭에 나쁜 용이 거처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龍들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 비바람을 일으켜 곡식을 상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⁴⁴⁾

스님께서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呪文과 經을 읽으며 아홉 마리의 용들에게 조용히 이 뜻을 떠나달라는 청을 하였으나 그 龍들은 일체 응하지 않자 스님께서서는 法力으로 아홉 마리의 龍과 결투를 벌였다.⁴⁵⁾

39) 위의 책, p. 298.

40) 임승용, 『오대법보』1·2, (오대산 월정사, 2001), p. 23.

41) 원주문화원, 『원주·원성향토지』(성문사, 1976), p. 458.

42) 불교전기문화연구회, 앞의 책, p. 227.

43) J. C. 쿠퍼,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까치, 1977), pp. 33-36.

44) 통도사성보박물관학예연구실, 『다시보는 통도사』(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p. 15.

45) 양산군지편집위원회, 앞의 책, p. 2098.

앞의 글과 더불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통도사의 佛僧과 龍의 대결을 다음과 같다.

예, 웅덩이, 물이 내려가다가 그 인자 못 맨치로 돼 가 있는데, 거게 구룡이 들어있어. 용 아홉 마리가 들어 있는데, 그 인자 그 龍 아홉 마리를 자아법사가 몰아냈는데,符를 써가지고 그 못에 넣으니까 龍이 다 날라가면서...⁴⁶⁾

또한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편찬한 『다시보는 통도사』에서는 佛僧과 龍의 대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때 자장에게 항복한 용은 모두 아홉 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다섯 마리는 오룡동으로, 세 마리는 삼동곡으로 갔으나, 오직 한 마리만은 굳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였으므로 스님은 그 용의 창을 들어 연못 한 귀퉁이를 메우지 않고 남겨 그 용을 머물도록 했다.⁴⁷⁾

다음은 구룡사의 佛僧과 龍의 대결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못을 메우자니 모처럼 용들이 사는 것을 쫓아야겠고 난감한 일이구나...대사님이 벌써 우리를 내쫓을 생각을 하시니 우리도 마음도 안놓여 살 수가 없소...용들은 연못에서 날아 하늘로 치솟더니 뇌성벽력과 함께 우박 같은 비를 쏟아 놓았다...대사는...부적을 한 장 그려 연못 속에 넣었다. 얼마 안 있어 연못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큰 연못의 물의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물 속에서 뜨거움을 참다못한 용들은 뛰쳐나와 한달음에 동해바다로 달아나고 말았다...그런데 이 아홉 마리의 용 가운데 한 마리의 용이 눈이 멀어서 미쳐 달아나지를 못하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연못으로 옮겨 앉았다.⁴⁸⁾

구룡사의 佛僧과 龍의 대결 내용을 보면, 佛僧은 부적이라는 주술을 사용해 전통적인 龍과 신통력 대결을 벌이고 있다. 옥룡사의 佛僧과 龍의 대결은 다음과 같다.

도선이 옥룡사를 세운 곳에는 원래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면서 도술을 부려 많은 사람을 괴롭혔다. 도선이 그들의 퇴거를 명하자 여덟 마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편』 8-13, p. 28.

47) 통도사성보박물관학예연구실, 앞의 책, p. 15.

48)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409-410.

리는 따랐으나 백룡만은 도술을 부리면서 대항하였다. 도선이 지팡이로 용의 왼쪽 눈을 멀게 하고 물을 끊게 하여 용을 쫓은 뒤 절터를 닦았다.⁴⁹⁾

앞의 내용과 같이 두 세력간의 대결에서 전통적인 龍의 패배는 용신앙터에 불교의 사찰이 건립되는 침탈을 허용한 것이 되며, 이는 불교의 신앙체계로 전통적인 신앙체계가 변모 또는 습합되어 가는 信仰勢力權의 획득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아홉 마리 龍이 물을 이용한 신통력의 발휘이며, 佛僧의 주술의 사용일 것이다. 이것은 불교적 입장에서 백성에게 害를 주는 毒龍이기에 이전에 전통신앙의 입장에서는 백성들과 오래도록 함께 해온 전통적인 水神이었다. 즉 불법에 歸依되어 守護神의 機能을 하는 畜生의 하나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물을 관장하는 최고의 水神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害를 주면 물로서 定罪하고, 자신을 崇奉하면 적절한 降雨을 내려주어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는 전통적인 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¹⁾

이처럼 불승과 아홉 마리 龍의 대결구조는 일방적인 龍의 패배로 종결된다. 하지만 아홉 마리 龍은 자신의 거처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산의 형태나 마을 이름으로 남긴 殉教龍으로 볼 수 있다.⁵²⁾ 이는 외래종교에게 구축당한 전통신앙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통신앙을 잊지 않기 위한 백성들의 갈망일 수도 있다. 반면 눈이 멀어 자신의 처소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한 마리 용은 사찰이 지어진 후 승천한다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력에 의해 치유되어 재탄생된 불교의 守護龍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龍신앙이 불교의 龍 관념과 습합되어, 護國護法하는 守護神 思想과 더불어 제재초복하는 辟邪의 기능도 함께 지니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찰 내에 龍王堂이나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龍의 거처가 존재하는 것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 靈異를 높여 백성들에게 불교를 깊이 믿게하려는 종교적 布教意志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49) 순천대학교박물관·광양시, 『광양 옥룡사지 I』(순천대학교, 1995), p. 15.

50) 이준곤, 앞의 책, p. 98.

51) 최중성, “용과 기우제”,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 pp. 291-312.

52) 변영석, “韓國龍說話의 根源과 象徵의意味研究: 三國史記·三國遺事所載 說話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p. 68.

53) 황민정, 앞의 글, p. 57.

마지막으로, 佛僧은 구룡소를 메우고 그곳에서 사찰을 창건한다는 신화적 모티브를 이룬다. 이는 전통적인 龍신앙의 聖所에 외래종교인 불교의 사찰을 건립해 새로운 聖地 만들기를 수행한 것이다. 우선 통도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속전에는 그 못에 九龍이 살고 있었는데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부촉에 의하여 九龍을 항복받아 퇴치시키고 못을 메워 大伽藍을 이룩했다.⁵⁴⁾

그리고 구룡사의 창사설화 또한 구룡소를 메우고 사찰을 창건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용들이 달아나자 대사는 못을 메우고 지금의 구룡사 대웅전을 지었다.⁵⁵⁾

마지막으로 옥룡사의 창사설화는 다음과 같다.

도선이 지팡이로 용의 왼쪽 눈을 멀게 하고 물을 끓게 하여 용을 쫓은 뒤 절터를 닦았다. 그러나 습지를 메우고 땅을 굳게 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변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눈병이 유행하였는데, 풍문을 좇아 눈병이 있는 사람들이 숲 한섬씩을 가져다가 연못에 부으면 감쪽같이 눈병이 나왔다. 이렇게 절터를 닦아 건물을 지은 뒤 부처님의 치아를 봉안하였다고 한다.⁵⁶⁾

이와 같은 전통적인 龍신앙터의 사찰건립은 전통신앙의 쇠퇴와 더불어, 백성의 교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⁵⁷⁾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始原으로 하여 전국토로 퍼져갔던 한불신앙과 나라를 세운 國祖들은 죽어서 산신이 된다는 믿음과 더불어, 국조를 낳은 聖母 또한 산신이라는 산악승배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유의 산악승배사상이 대부분의 사찰 내에서 山神閣 또는 山靈閣, 그리고 龍王堂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54) 양산군지편집위원회, 앞의 책, p. 2150.

55) 원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409-410.

56) 순천대학교박물관·광양시, 앞의 책, p. 15.

57) 신월균도 전통적인 용신을 제압하고 사찰을 건립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용신을 제압하고 사찰이 들어서지는 것은 신앙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불교의 권위 강화를 의미한다. 이 때의 불교는 단순히 종교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國敎로서 나라의 통치 이념인 동시에 국민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므로 불교의 권위는 곧 국가의 권위와 연결되었으며 호법은 곧 호국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신월균, “한국설화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 p. 262.

또한 미약했던 왕실의 권위도 강화시킬 수 있었다.⁵⁸⁾ 신라시대 대부분의 護國護法寺刹들은 왕실의 주관아래 건축되었고, 그 장소로 전통적인 龍신앙터를 선택해 창사되었다. 왜냐하면, 護國寺刹은 護法思想이 바탕이 되어 國家鎮護 내지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護國·護法思想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찰들은 국조·지모·호국의 상징적 표상인 전통적인 龍신앙의 신위력과 영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⁵⁹⁾

이처럼 외래종교인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불교 龍 관념의 유입은 전통적인 龍 관념과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불교의 사찰을 전통적인 龍의 성소에 건축함으로써 전통신앙의 말살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관과 世界觀, 그리고 宇宙觀을 정립했던 것이다.⁶⁰⁾

V. 결 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래의 宗教와 思想이 유입되어 왔다. 삼국시대에 중국을 거쳐 전래된 불교를 비롯해서, 고려말에 도입된 중국의 성리학과 조선 후기에 들어온 서양의 천주교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어떤 외래종교와 사상이든 쉽사리 한국에 들어와 자리잡은 것은 없었다.⁶¹⁾ 그것은 기존의 전통신앙이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신라의 경우도 예외적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되었을 때, 당연히 전통신앙과 대립·갈등양상을 보였으며,⁶²⁾ 이를 사찰 창건설화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전통적인 龍과 佛

58) 한상우, 앞의 글, p. 125 참조.

59) 천소은, “三國遺事”에 나타난 龍神說話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1992, p. 53.

60) 이준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사회가 종교적인 변모를 보이면서 기존의 종교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체계 속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세계관의 변화이다. 이 세계관적인 변화가 불교수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지녀왔던 자연신앙적인 세계관을 불교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내고 다시 신앙체계를 재편성 하려는 시도는 신라의 커다란 사회적 변동이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사회적인 세력이 형성되어 갔으며,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서 국가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불교적인 연원(淵源)을 따랐으며, 과거의 신라의 유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불교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이준곤, 앞의 글, p. 131.)

61) 한국역사학회,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청년사, 1998), pp. 343-344.

62) 신형식, 앞의 책, p. 34.

僧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수용이라는 신화적 모티브를 이루고 있는 ‘毒龍退治型’ 창사설화 중 九龍 관련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신라는 대표적인 佛敎國家이며, 佛國土思想을 토대로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건립했고, 이를 국민총화단결의 思想的 母胎로 삼아 삼국통일을 이룩한 나라다. 특히 佛國土思想을 토대로 전국에 건축된 수많은 사찰들은 대부분 護國護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라의 護國護法의 특성을 보이는 사찰 중 龍 관련 사찰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龍신앙의 聖所에 창사되었고, 그 성소에 거처하던 龍들은 불교 龍으로 대체되거나 불법에 귀의된 龍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를 가지고 있는 사찰에 등장하는 龍은 護國護法하는 불교 龍이 아니라, 전통신앙을 지키려다 毒龍으로 치부되어 퇴치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전통신앙의 龍으로, 전통신앙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한 殉敎龍이라 할 것이다.⁶³⁾ 바로 독룡퇴치형 창사설화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龍으로서, 불교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하다 주술로 다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교화되었지만,⁶⁴⁾ 전통적인 龍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龍으로서 불교에 대응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毒龍退治型’ 창사설화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龍은 비록 毒龍으로 치부되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죽음을 각오했던 투쟁을 통해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毒龍退治型’ 창사설화는 단순히 사찰의 창사기원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사회적·종교적 이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도사·구룡사·옥룡사의 九龍 관련 창사설화는 ‘毒龍退治型’ 창사설화 중 전통신앙과 외래종교와의 대립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왕실과 지방 주상세력 간의 정치사회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몇 사찰의 창사설화를 통해 거대한 국가의 시대사적 흐름을 파악하기란 매우 자의적이고 편협한 해석이 가미될 경향을 함축하고 있어 상당한 심층함이 요구된다.

63) 홍경표, 앞의 글, p. 275.

64) 이우성의 글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龍은 우리 고대 남방국가에서 遍在했던 보편적인 토tem상징이었다. 그리고 初期단계에서는 숭배와 경의의 대상이었던 善龍의 존재였고, 고대 씨족집단간의 극히 화해적인 표상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신분적 위계가 변모하면서 惡龍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그 위력을 상실해 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신라 中後期로 넘어가면서 본래의 善龍의 ‘이미지’는 국가의 守護神인 護國龍神으로 변용되고, 惡龍은 불교의 종교적 권위에 의해 퇴치되거나 교화됨으로써 불교신앙의 神聖性을 표시하는 매개적인 기능으로 바뀌어진다. 이우성, 앞의 글, p. 7.